



꿈인들잇힐리야 대청호

오백리길 2구간 & 노고산성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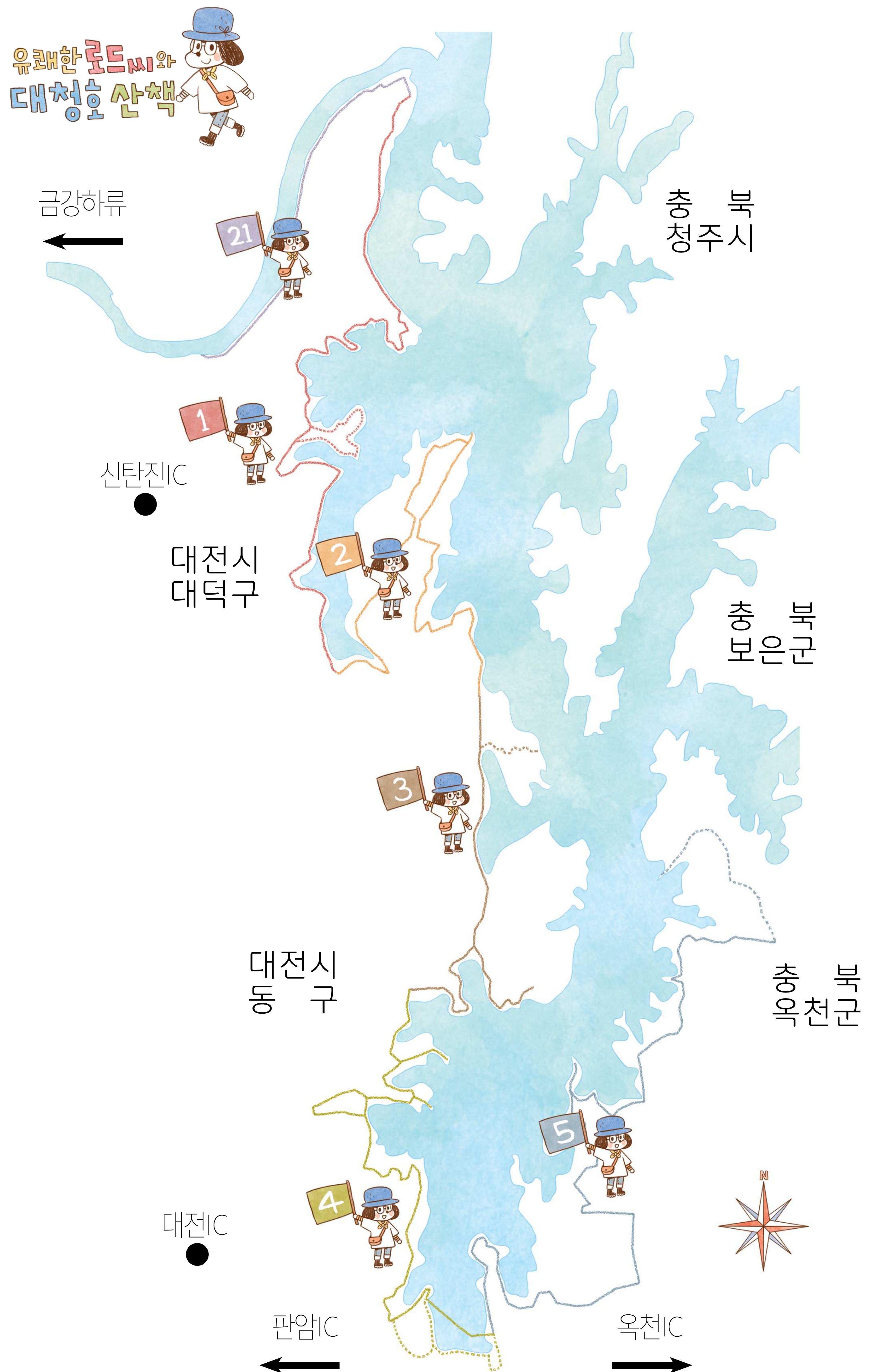
꿈인들앗힐리아 대청호

오백리길 대전구간

(21구간 일부·1~5구간)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호수인 대청호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저수량이 상당하다. 대전과 청주, 천안을 비롯한 충청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옥천, 보은, 청주를 끼고 있어 그 둘레가 무려 500리(약 200km)나 되며, 호수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려면 승용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대청호수변의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다양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다. 봄의 벚꽃길, 여름의 녹음, 가을의 갈대와 억새, 겨울의 물안개와 설경 등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은 대청호의 매력 중 하나다. 과거 수물마을, 화전민 등의 아픈 기억도 있지만 현재는 근교나들이 코스, 이색적인 장소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국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청호오백리길의 전체 21개 구간 중 1~5구간 그리고 21구간과 6구간 일부가 대전광역시에 속한다. 대청댐이 자리한 1구간에는 대청댐물문화관, 로하스캠핑장 등이 있다. 2구간의 이현동생태습지에서는 10월에 호박축제가 열린다. 3구간에는 대청호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는 조망 포인트가 많다. 4구간은 드라마, 영화 촬영 명소로 꼽힐 정도로 대청호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으며, 5구간의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과 억새숲길 또한 아름답다.





꿈인들찾힐리아

대청호 오백리길 2구간

대청호의 아름다운 파노라마

찬샘마을길 & 노고산성길

대청호오백리길 2구간의 시작은 이현동의 두메마을에서 시작한다. 가을이면 호박축제가 열리는 이곳에는 생태습지가 있다. 마을에서 대청호로 흘러드는 배오개천이 이곳에서 자연정화가 된다.

새롭게 조성된 데크길 산책로를 지나 찬샘마을 입구에서 부수동의 호수변을 따라 걷는다. 성치산성은 삼국시대에 쌓은 성으로 그 흔적을 찾아보긴 쉽지 않다. 성치산성길에선 청남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성에서 내려오면 윗피골에 도착한다. 피골이라는 말은 백제와 신라 병사들이 치열하게 싸워 피로 붉게 물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훗날 마을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냉천수가 많이 나온다는 뜻의 찬샘마을

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윗피골의 큰 정자나무가 있는 고개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면 찬샘정이 나온다.

찬샘정은 대청호 조성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동구에서 조성한 정자다. 정자 옆엔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내 고향 냉천 땅에서 갱이 들고 땅을 파던 시절이 그림구나’로 시작되는 망향가를 적은 빗돌이 있다.

찬샘정 뒤편 노고산성에 올라보자.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대청호 최고의 절경이다. 찬샘정을 지나 남쪽으로 약 1km 정도 걸으면 나오는 냉천버스 종점은 2구간을 마치며 3구간이 시작되는 곳이다.





꿈엔들맛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 2구간** ————— **찬샘마을길 10km**
노고산성길 ————— **대청호 파노라마 2.5km**
통외조망길 ————— **통외 일출 2km**



* 자료참고: www.dc500.org, m.everytrail.co.kr



꿈엔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노고산성길 2.5km



주변이 탁 트인 노고산성의 전망은
대청호에서 사계절 일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
낮게 뻗어나간 산줄기들과 산줄기를 휘감아 나오는 물줄기,
척척이 쌓여있는 능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한 폭의 수묵화를 만든다.



가벼운 산행



운행버스가 없어요



차량 동행 불가



산악 자전거



꿈인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통모조망길 2km



성치산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직동 산 3-1번지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
물가를 따라 걸을 수 있다.

동틀 무렵 대청호에 비치는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묘처럼 생겼다하여 통모로 불렸을 야트막한 산 위아래로 뜨는 일출이 아름답다.



숲길 걷기 & 가벼운 산행



운행버스가 없어요



차량 동행 불가



산악 자전거



꿈엔들맞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열심 산책 여행자를 위한 로드씨의 추천 코스

* 대중교통 이용 여행자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코스내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표시 B) 어디에서도 출발과 종료가 가능합니다.
자가용 여행자는 주차 가능 표시 P를 참고해주세요.





꿈엔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이현동 거대억새습지공원

대청호 오백리길 2구간

대청호오백리길 1구간의 끝과 2구간의 시작점인 이현동의 거대억새습지공원. 마을에서 대청호로 흘러 들어가는 배 오개천이 이곳에서 자연정화가 된다.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갈대와 억새가 가득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오색빛의 호박들로 꾸며진 호박정원,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호박터널은 장관을 이룬다.



꿈엔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직동 종점(찬샘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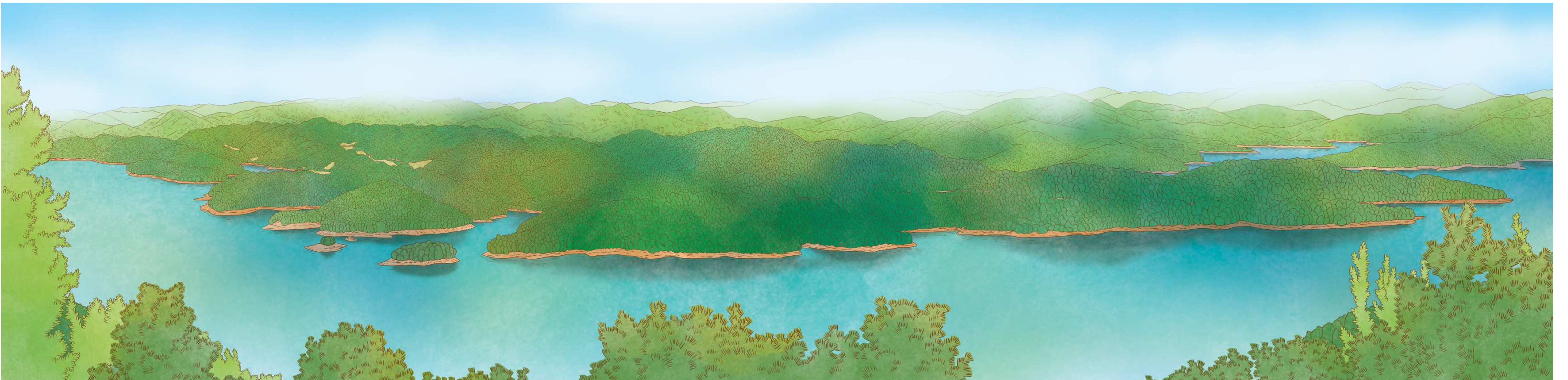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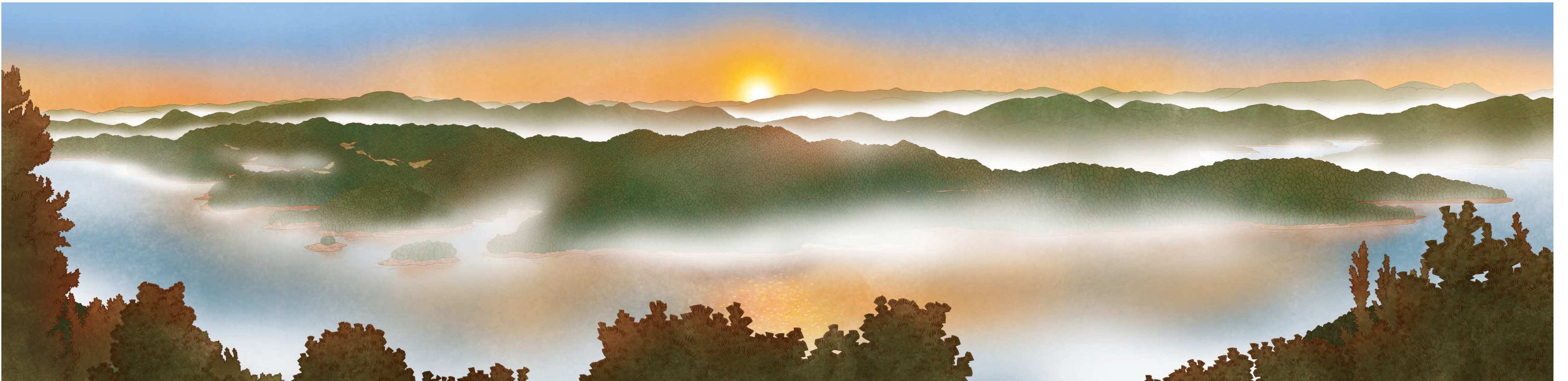
대청호 오백리길 2구간

찬샘마을의 유일한 버스 정류장. 70분에 한 대인 60번 버스와 2시간에 한 대인 71번 버스 두 대만이 마을을 드나든다. 시티투어 버스도 정차해 차 시간만 잘 맞춘다면 두박이 여행도 문제없다. 찬샘마을(냉천골)은 대청호 담수로 일부가 물에 잠겨 주민들은 타지로 떠나고 일부만 현재 직동 종점 부근에 모여 산다.



꿈인들앗힐리아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노고산성 파노라마

대청호 오백리길 2구간

노고산성은 백제시대의 성곽으로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이기도 했다. 주변이 탁 트인 노고산성의 전망은 대청호에서 사계절 일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 중 손에 꼽히는 곳이다. 낮게 뻗어나간 산줄기들과 산줄기를 휘감아 나오는 물줄기, 첩첩이 쌓여있는 능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한 폭의 수묵화를 만든다.



꿈인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부수동 느티나무 대청호 오백리길 2구간

찬샘마을을 지나 부수동의 호수변을 따라 걷다 보면 커다란 느티나무와 돌탑을 만나게 된다. 수령이 330년이 넘는 느티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왔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부수골 목신제'를 열어 마을의 안녕을 빌어왔다. 대청댐 담수로 성치산을 제외하고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겨 지금은 느티나무와 돌탑만이 부수동을 지키고 있다.



꿈엔들앗힐리아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황호동 서당골 파노라마

대청호 오백리길 2구간

황호동에서 유일하게 수몰되지 않은 서당골 끝자락에서 바라본 대청호 남쪽 풍경. 왼쪽(동편)에는 대청
댐 건설 이후 수몰되고 일부가 무인도로 남아 있는 누루꾸지가 보이고 정면에는 충북 문의면이 자리하
고 있다. 이른 아침 역광과 연무가 어우러져 펼쳐놓은 파노라마는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화를 연출한다.



꿈엔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통뒹

대청호 오백리길 2구간

성치산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직동 산 3-1번지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 물가를 따라 걸을 수 있다. 나락이 일찍 익었다는 조실구레, 주변에 밤나무가 많았다는 방골(밤골)마을이 있던 곳. 지금은 물에 잠겨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묘처럼 생겼다하여 통뒹로 불렸을 것 같은 야트막한 산은 물에서 떨어져 섬이 되었다.



꿈엔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대청호의 자연

대청호에는 고라니, 쇠딱따구리, 도롱뇽, 썩 등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청호의 실제 주인이라 할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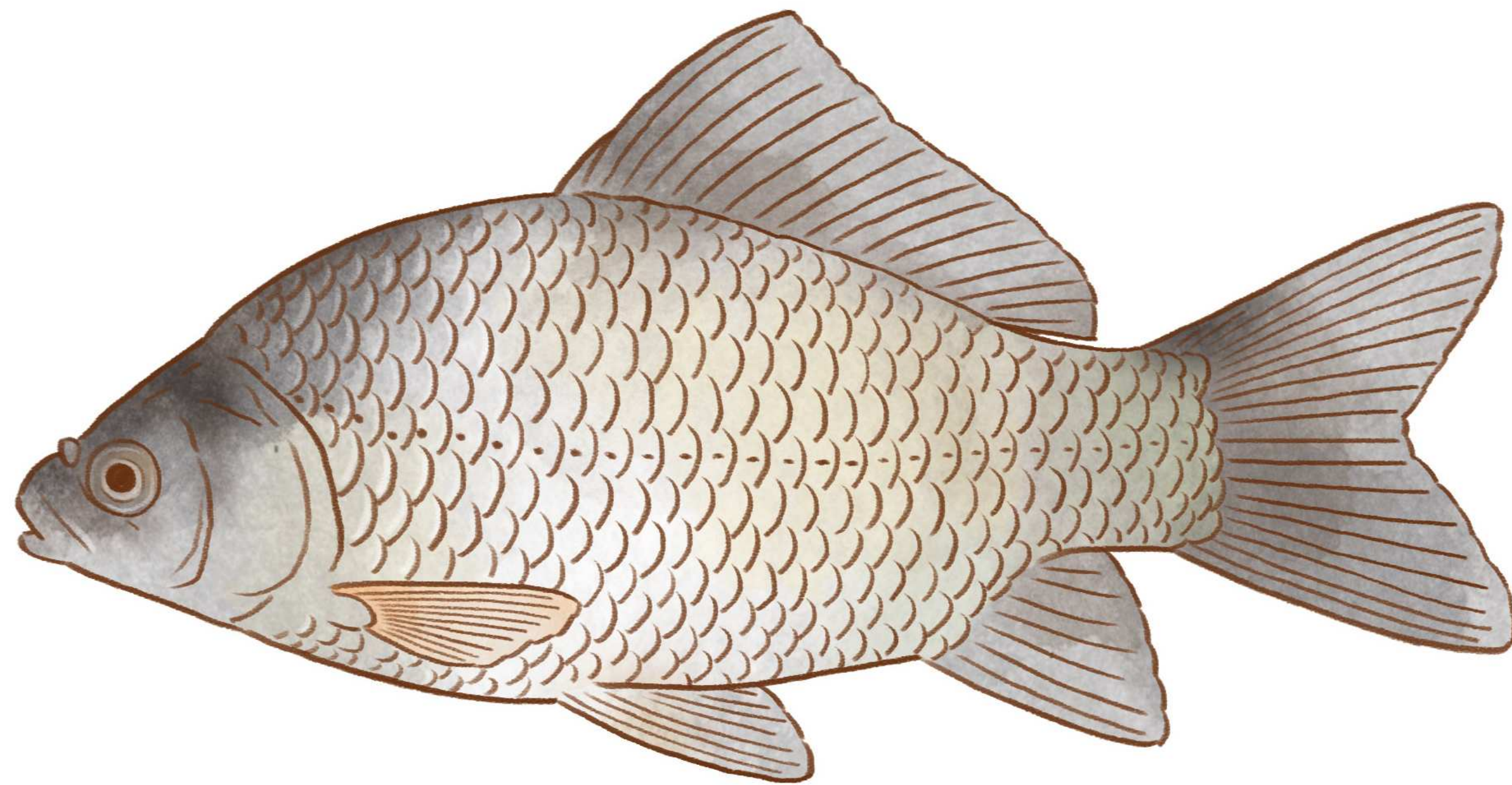




꿈엔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붕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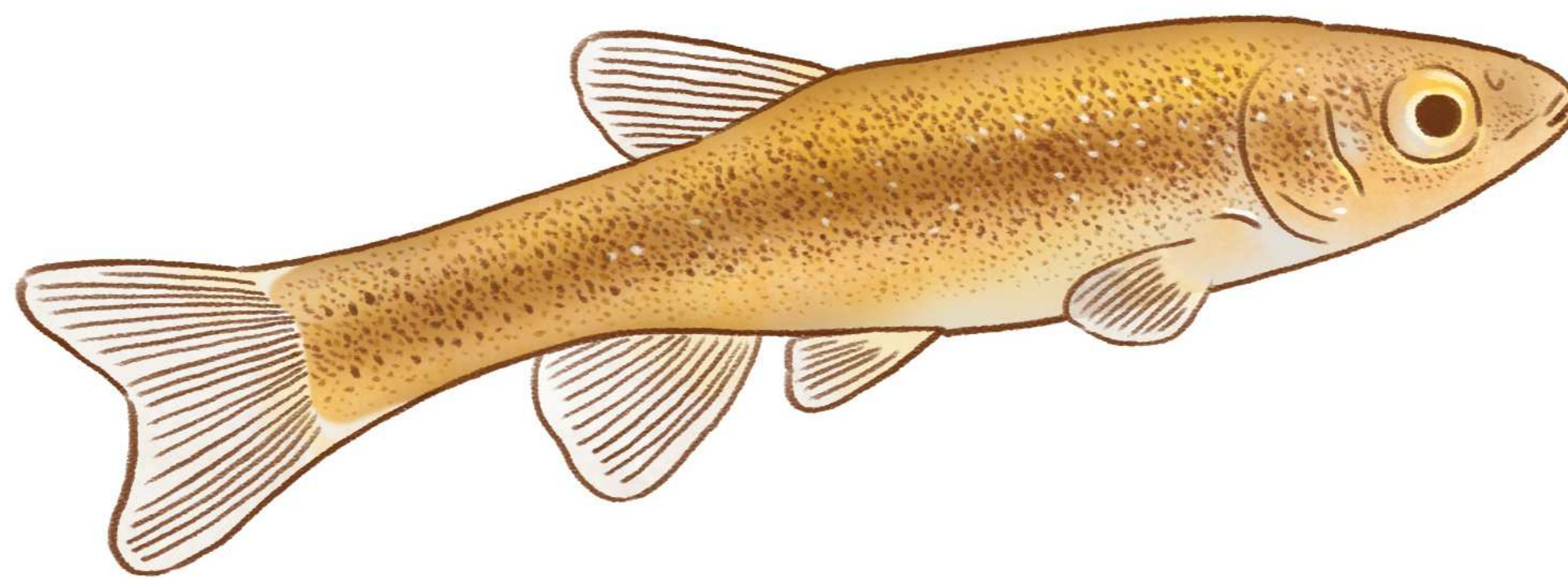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가장 강한 물고기이다.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곳에 많이 분포하여 기호식품이며 중요한 담수어 자원이다.



꿈인들앗힐리아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버들치



버들치는 산골짜기에 흐르는 찬 냇물이나 강 상류에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물 속에 사는 곤충이나 부착조류를 먹고 살며, 4~5월에 산란한다.



꿈인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꿈엔들앗힐리아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쇠딱따구리



딱따구리와 새들 중에서
가장 작은새로 몸길이가
15cm 정도 된다. 한국의
텃새로 주로 활엽수림,
잡목림의 교목 줄기에
구멍을 파고 둥지를 튼다.



꿈인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고라니



고라니는 단독생활을
한다. 대개 새벽이나
해질녘에 활동을 많이
한다. 물을 좋아하고
수영을 잘한다. 위턱
의 송곳니가 엄니모양
으로 발달했는데 수컷의
송곳니는 약 6cm 정도로
입 밖으로 나와있다.



꿈엔들앗힐리아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청설모

주행성으로 주로
나무 위에서 활동
한다. 호두, 잣 등의
종자, 과실, 버섯,
곤충 등을 먹는다.
가을에는 땅속이나
바위, 나무 틈새에
도토리 등을 저장해
겨울 대비를 한다.





꿈엔들앗힐리야 대청호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